

“인쇄 위상제고 원년 만들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 200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서교 호텔에서 박득룡 인쇄연합회회장, 고수곤 서울인쇄조합이사장, 하계민 부산인쇄조합이사장 등 내빈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2004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 업계 발전과 소속 회사발전에 공이 많은 영동기획인쇄 이동석공장장 등 34명에게 인협 회장상(사진)이 수여되었으며 인쇄업체들의 클린사업장 조성에 크게 기여한 최용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북부지원 안전지원팀 차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안전 심의에 앞서 민재기 회장(한용근 부회장 대독)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우리 업계가 97년의 외환위기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



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과 인쇄 및 관련업계의 성원으로 현재의 인쇄문화회관 한 개 층을 증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활자전문박물관인 인쇄역사문화관을 건립하였으며 인쇄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도서전에 한국인쇄관을 마련하여 참가하였고 청구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교류회의개최, 일본인쇄전시회 및 상해인쇄전시회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인쇄문화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어 “우리 업계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난관극복을 위한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랑크프르트 도서전에 참가하여 수출 3억달러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드루파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KIPES 개최 등을 통해 인쇄문화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인쇄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



전국 인쇄조합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돼 200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인천인쇄정보조합은 18일 뉴그랜드호텔에서, 경기인쇄정보조합은 18일 리젠시관광호텔에서,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은 20일 샷도그레이크호텔에서, 충북인

쇄정보조합은 21일 궁전부페에서,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은 20일 프린스호텔에서, 부산인쇄정보조합은 16일 부산호텔에서, 울산경남인쇄정보조합은 21일 창원호텔에서, 광주전남인쇄정보조합은 20일 파레스호텔에서, 전북인쇄정보조합은 19일 백번집에서, 강원인쇄정보조합은 19일 파레스뷔페에서, 제주인쇄정보조합

은 21일 오리엔탈호텔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편 올 정기총회에서는 인천조합이사에 심응선 광명인쇄사사장, 대구경북조합이사에 박의현 대창사사장, 울산경남조합이사에 이철안 전이사장, 광주전남조합이사에 해성출판인쇄사 황금주사장이 선출됐다.

출판단지조합 “출판도시 완성의 해” 이루자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2월10일 과주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3년도 사업·결산·감사 보고에 이어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에 관한 의안심의의 순

으로 진행됐다.

이기웅 이사장은 “올해 목표를 ‘출판도시 완성을 위한 다짐의 해’로 정했다”며 “올해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될 업체가 9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교통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들이 힘



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협동조합 “출판유통 주체 역할 다하자”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지난 2월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03년도 정기총회 의사록 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에 관한 의안 심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수 이사장은 “지난해는 대형조합원사의 이탈도 있었고 총매출액도 감소하는 등 힘겨웠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보면 그리 나쁜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올해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4억 5천만 원의 출판유통 자동화 자금 등을



활용, 출판유통주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일인쇄조합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환)은 지난 2월17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세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동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준비하는 이들에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변화를 주도하

는 기업인이 되자”고 말했다. 민재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일조합은 업계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조합으로, 창립 10년이 지난 지금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공동구매와 판매 사업을 통



해 인쇄의 메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 이사장에 이충원 사장

제22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이충원 선문사 사장이 당선됐다. 지난달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충원사와 한용근 금영문화사사장, 조정석 (주)대원문화사사장, 반석규 반석기획인쇄사장이 경합을 벌려 직접투표로 이충원 사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1297명이 참여했으며 이충원사장이 575표를 획득했다.

이날 총회는 광득룡 인쇄연합회 회장 등 내빈과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2003년도 결산서, 잉여금처분안, 2004년도 수지예산안 및 사업계획 등 상정 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수곤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조합과 조합원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또 "인쇄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에 인쇄정보센터 건립, 경인쇄조합과의 통합, 서울시특화품목 지정, 동경도인쇄조합과의 교류협정 체결, 서울인쇄센터 설립,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 조합 재정안정화 등을 이룬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오늘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미래 인쇄문화를 새롭게 열어 나가는 서울조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신임이사장 공약

□ '조합형 협동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조합형 협동화 사업장'을 인쇄조합이 책임지고 성공시킬 것이다.

- 인쇄금고의 형태로 500억원을 조성하여 '조합형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것이다.

- 인쇄전산센터는 '조합형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영업, 생산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이다.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 세제 등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인쇄단기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 현실적인 인쇄기준가격을 정하겠다.

- 인쇄단가 지키기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

- 모든 인쇄인이 참여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하도록 하겠다.

□ 조합이 직접 새로운 단체수의계약



이충원 이사장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충원 선문사 사장은 1941년 생으로 충남 예산농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과에서 3년간 수학했다. 제일인쇄조합 초대이사장을 역임했고 서울인쇄조합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인쇄연합회이사, 인쇄연구소경영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충원 사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지지해 준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선거가 끝난 만큼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인쇄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자”고 역설했다.

물량을 확보하여 조합원에게 고루 분배할 것이다.

- 언론기관, 관변단체 등에 빼앗겼던 물량을 되찾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등 물량을 증대시킬 것이다.

- 가능한 영세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합원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인쇄금고 500억원을 조성하겠다.

-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선 지원하여 원가절감 및 조합원의 자금안정에 기여하겠다.

- ‘조합형 협동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지원하겠다.

- 조합원을 위해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공공구매사업의 확대를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겠다.

- 지류 공동구매를 확대해 시중가격보다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 PS판과 잉크도 공동구매로 공급하겠다.

- 폐기물 처리의 공동 해결을 모색하겠다.

- 긴급기계수리 119기동반을 주야로

운영하겠다.

□ ‘인쇄전산센터’를 운영하여 회원사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겠다.

- 컴퓨터 교육 및 A/S를 무상 지원하겠다.

- 컴퓨터 공동구매 및 홈페이지 제작 운영을 지원하겠다.

- 디자인 자료 풀(Pool)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ی겠다.

- 회원사의 영업, 생산관리 등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팀을 구성할 것이다.

- ‘웹 하드’의 무료제공을 통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

□ 인쇄수출사업부를 운영하겠다.

- 정부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쇄수출 지원정책을 유도하겠다.

- 인쇄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 해외시장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인쇄수출사업부를 신설해 조합회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인쇄전문인력 인턴제와 해외인력 수급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인쇄인력 인턴제를 추진하여 인쇄인력을 탄력적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

- 해외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단순기능인력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 젊은 인쇄전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 및 혜택을 모색하겠다.

□ 인쇄인의 자긍심 확립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 문화관광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쇄문화인 대축제’를 준비, 개최하겠다.

- 인쇄산업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매체 광고 및 이벤트를 추진하겠다.

- 인쇄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 출판 지원 추진하겠다. <유창준 국장>